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산 속에 위치해있어 주변에 도시 같은 편의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TREE TOP이라는 액티비티 시설과 조류동물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 쉽게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업이 끝나면 모두 교통수단을 이용해 시내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주시고 매니저님들도 친절하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저희는 총 8교시로 1:1수업 4시간 GROUP수업 4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룹은 첫 날보는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잘라서 구성되어집니다. 책의 난이도도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이뤄집니다. 1:1수업 교과목 4K EEW: 영단어 책으로 하루에 20단어씩 공부했고 모르는 단어는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고 직접 예시를 만들어보게 하셨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신데 제 담당이셨던 선생님 한 분은 아는 단어도 다시 한번씩 짚어주셨고, 다른 분은 하루 동안 배운 단어를 서로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도 했습니다. (같은 책으로 2명의 선생님과 수업함, 한 분은 앞에서부터 다른 분은 뒤에서부터) CAN YOU BELIEVE IT: Idiom을 배우는 수업으로 한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 속에 사용된 idiom들을 배우고, 문제도 풀고, 직접 사용해서 말해보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IMPACT ISSUES: 한 유닛 당 토의할 만한 주제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고, 선생님과 그 이야기를 읽어본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다 보니 유익하게 느껴졌습니다.) GROUP 수업 교과목 READING FOR REAL: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고, 이야기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EXPRESS YOURSELF: IMPACT ISSUES와 방식은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토의 주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저희 조 담당 선생님은 워낙 유쾌하신 분이어서 책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선생님의 방식대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조원들과 함께 즐기면서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MULTI MEDIA CLASS: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를 통해 수업이 이뤄지고 조원들이랑 같이 광고1개, 뮤직비디오1개를 만드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과제물은 발표회 날 다른 조들, 선생님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보고 순위도 매깁니다. 이 촬영을 계기로 조원들과 이곳 저곳 많이 놀러 다녀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TOEIC SPEAKING: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볼 때 유익한 정보들을 배우고 직접 모의테스트를 보면서 연습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을 지 알려주는 수업이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매주 수요일은 ACTIVITY DAY, 금요일은 FUN FRIDAY입니다. 수요일은 6교시까지만 수업이 이뤄지고 그 7,8교시에는 다 같이 다이닝 룸에 모여 ACTIVITY를 합니다. 첫 주엔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게임, 두 번째 주엔 사진보고 따라하기 등의 게임, 셋째 주엔 영화보기(저희는 옥자를 봤습니다.)로 나름 재밌는 활동들로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주엔 런닝맨 같이 뛰어다니면서 미션을 푸는 게임도 했습니다. 금요일엔 정규수업이 그대로 이뤄지는데 다 같이 동일한 아이템을 착용하는 날 입니다. 첫 번째 주는 PINK SHIRT DAY로 모두 분홍색 셔츠를 입었고, 두 번째 주는 HIGH COLORFUL SOCKS DAY로 화려하고 긴 양말을 신었습니다. 마지막 주엔

	TRAFFIC DAY로 커플인 사람은 빨간티, 복잡한 관계는 노란티, 솔로는 초록색티를 입는 날이었습니다. 1층에는 포토존이 있고, 수업 중간에 잠깐 BUDDY TEACHER가 오셔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 외엔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사진을 찍는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의 하루는 FREE DAY 하루는 ACTIVITY DAY인데 저희는 마닐라 투어, 안바야 리조트,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저희가 갔을 때는 우기여서 비가 정말 자주 왔습니다. 하루에 2~3번은 꼭 왔는데 비가 와도 금방 그쳐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우산은 항상 챙겨다녀야 합니다. 평소 가장 더울 낮 시간에는 실내에서 수업을 받으니까 더위의 정도를 잘 몰랐는데 낮 시간대의 햇빛이 정말 뜨거워서 주말에 액티비티를 나가는 날에는 날씨와 시간대를 참고해서 의복을 착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닐라 투어나 시내에 나갈 때 선생님들 모두 가방을 앞으로 하고 다니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조심하면서 다녔는데 그것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생긴 적은 없었고,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롱가포 시내 골목 쪽은 위험하다고 해서 무리지어서 다녔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건물은 총5층이고 한 대학당 한 층에 몰아서 방을 배정해줬습니다. 저희는 4층에서 3인1실 혹은 2인1실로 이뤄졌는데 생각보다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방에는 옷장3개, 책상작은거1개,큰거1개, 냉장고1개, 세면대, 화장실(+샤워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1층에는 다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다이닝룸이 따로 위치해있었습니다. 평소 통금시간은 10시까지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12시까지 입니다. 마지막

	주의 하루는 통금 2시까지 해줍니다. 점호도 통금시간 대에 하고 점호가 끝나면 층간 이동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은 학교식당에서 먹고 대부분은 밖에 나가서 사먹었던 것 같아요. 학교식당음식이 싫은 것보다는 나가서 이것 저것 먹어보고 싶어서 자주 나갔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매일 오후 5시에 샌딩서비스라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별 선착순으로 진행돼서 이름을 빨리 못 적으면 FB나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가야 하는데 콜택시를 부르면 값도 조금 더 비싸고 오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서 FB를 타고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콜택시부르면 항상 1시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샌딩 서비스도 초반엔 대학 당 20? 30명? 까지 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대학들도 오니깐 샌딩이 10명으로 줄어서 불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바베큐파티	8,448(400p)	
항공료	12,672(600p)	출국할 때 필요한 비용
개인 활동비	380,000	

합계	약 1,128,120	출국 전 사전 납부비용+350달러+5만원 사용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어떤 Fun Friday를 할지 사전 공지가 이뤄진다면 필요할 옷이나 장식품을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사도 괜찮지만 다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을 미리 준비해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룹 선생님 4분, 개인 선생님 4분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룹 선생님은 그룹원들이랑 다같이 챙겨줬고 개인 선생님들은 그 곳에서 쌤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 사드렸었어요~

저는 350달러 환전해가고 혹시 몰라 한화로 5만원 더 챙겨갔는데 마지막엔 돈이 부족해서 친구들한테 3만원정도 더 빌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저것 많이 사기보다는 액티비티 하는데 돈을 많이 사용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tree top, zoobic safari, ocean adventure, 외에도 마사지샵3번, 네일샵1번 등) 근데 다들 400달러 ~500달러 챙겨와야 넉넉히 사용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친구들이 어학연수 가는 것 추천하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추천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추억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한달 간 공부하면서 어떤 영어를 어떤 상황에 쓰면 적절한 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일상 생활 속에서 사용할 만한 기본 회화들은 많이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다만 영어 실력 향상에 큰 기대를 하진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회화, 영어로 대화하는 데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영어실력 향상은 한달 이란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영어 공부를 하러 갔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함께 연수를 간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선생님들 모두 좋은 사람들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7시면 일어나 8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5시에 수업이 끝나면 시내에 나가서 이것 저것 경험해보고, 필리핀에 있는 동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깐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찼어요. 한국에 있었다라면 집에서 빈둥거리고 친구들 만나고 일하고 에서 그쳤을 시간들이 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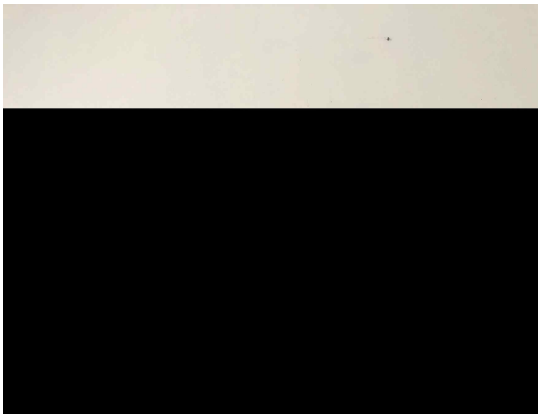
들을 만나는 시간들로 가득차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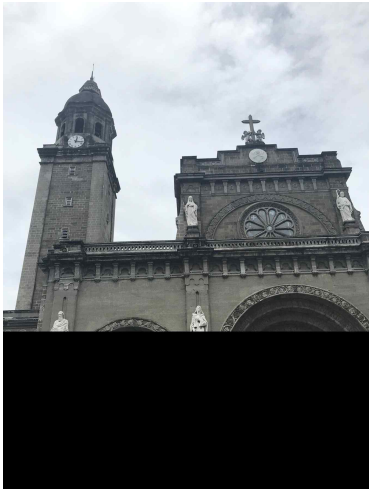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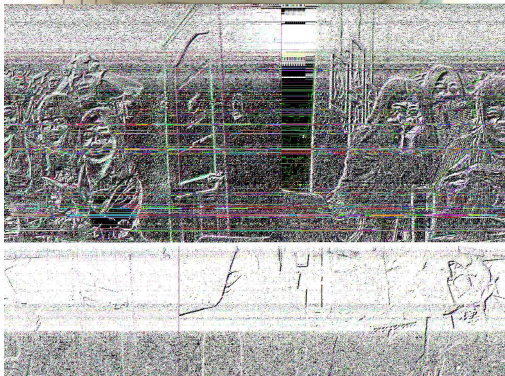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항상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 줘요

처음엔 비웃는 건지 호의인건지 구분이 안가 기분이 오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게임방에서 게임할 때면 필리핀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저희가 게임하는 걸 구경해요. 저희가 게임하고 나올 때 우산을 두고 나와서 한 친구가 우산도 챙겨주고 게임쿠폰도 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외에도 제가 만난 분들은 다들 따뜻하신 분들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 필리핀에 올 때와 갈 때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가는 것 같아요.

제게 필리핀에서의 한 달은 정말 선물 같았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바비큐 파티하고 수영장에서 쌤들이랑 친구들이랑 놀.	High colorful socks day

	
조원들과 수빅베이에서 mmc 촬영	마닐라 투어
	
그룹 선생님 마지막 수업 날	MMC 발표날